

끝나지 않은 전쟁, 결핵

송선대 ■ 국립마산결핵병원장

1960년 ~ 1970년대는 우리 나라 결핵관리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사업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서야 비로소 체계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조직이 체제를 갖추었고, 이 분야 종사자(결핵관리요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 또한 남달랐다.

여기서 당시의 눈으로 정부 결핵관리요원의 사회적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선 요원들은 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당시 우리 나라 사회통념으로 보아 보수적인 농촌지역에서 여성이 가사 이외에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이나 직장을 가진 것은, 여성 사회진출의 첫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 사회통념으로 여성의 행동방경은 가정내로 국한되어 있었고, 기껏해야 며칠에 한번 시장 보러 가는 것과 동네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삶의 푸념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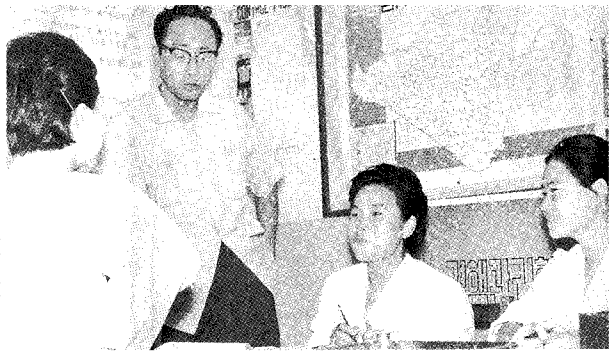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정부의 결핵관리요원으로 여성이 정부정책의 앞선 수행자가 됐다는 것은 당시의 정부 가족계획요원과 더불어 가정내에서 여성의 기능을 바깥세상으로 끌어내는, 다시 말하면 사회참여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그때의 보건요원은 여성 엘리트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결핵이 사회적으로 공포의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결핵환자들이 좌절

하였고, 이에 가족이나 주위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핵계몽교육(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결핵은 치료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요즘은 결핵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과잉 결핵 계몽교육의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1967년도 보건소 결핵 관리실과(옆) 1970년도 결핵관리요원들의 모습이다(아래) 당시 활발했던 결핵관리 사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풍경이라 하겠다

여기서 “오늘의 건강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결과이다” 라는 건강철학을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 나라의 국가결핵관리사업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사회 개발과 더불어 세계 결핵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성공적인 사업효과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공적 효과가 결핵관리사업 초기에 참여한 보건사업 전문가들의 공로라는 것이 간과되고 있는 듯 하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거나 조명하는데 있어 대부분이 무관심하거나, 쉽게 잊어버리는데 지나간 진실을 조명해야만 보다 나은 내일을 기다릴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우리 나라 국가결핵관리사업이 누가 뭐라 해도 세계 최고의 성공적인 전염병관리 Program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요즘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장하는 DOTS 프로그램은 실은 오래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여 시행하였던 내용임을 이 분야 종사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성공한 우리 나라 결핵관리사업에도 그들은 있다. 난치성 결핵의 등장으로 결핵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원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과 결핵과의 투쟁에서 승패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난치성 결핵문제의 해법은 한마디로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결핵관리사업이 건국초기부터 국가보건정책으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핵문제의 심각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이토록 오랜시간 지속하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어지러운 정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결핵관리 문제만큼은 아직도 상당기간, 아니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관리 해야함을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결핵관리의 어려움에 앞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연재해 주신 송선대 원장님과 지면을 아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